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조정자 훈련 과정 교육



우리회 상담실이 주관하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조정자 훈련 과정 교육'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 교육장에서 열리고 있다.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사진은 4월 16일 교육의 조별 토론 모습.

신임임원 인사



최선미 (부회장·특별위원장)
우리회의 독보적인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목표로 전국의 강사 및 교육을 취합하여 센터준비에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맡았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해요~



이정숙 (사무처장)
김포지회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본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처 상근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혁신적인 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후원주점

어느덧 참교육학부모회가 스물 네 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늘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어깨를 나누는 분들이 있기에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따뜻한 자리에 함께 하시어 새 희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13년 6월 5일(수) 오후 3시 ~ 밤 11시
장 소 : 레벤브로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20m 직진 광주은행 지하)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6-742601 참교육학부모회
문의 : 02-393-8900 / hakbumo.or.kr



* [알림] 참교육학부모회 본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전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7-14 2층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④ 청소년 내길찾기 꿈틀학교

〈편집자 주〉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소중한 나를 발견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길 찾기를 하도록 지원하는 꿈틀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상을 보물 삼아, 사람을 희망삼아

‘꿈틀거림, 꿈을 짜는 벚, 꿈이 트다, 꿈의 틀,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꿈틀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길 찾기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목표를 학교 이름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2002년 학교 밖 친구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계발하고 배움의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행복한 꿈을 꾸게 하려고 시민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개교했습니다. 16-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춘 고등과정으로 2년 4학기로 진행됩니다. ‘즐거움 배움, 세상과 만남, 내가 찾는 꿈’을 교훈으로 즐겁고 신나는 학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서로 돕고 배려하는 학교,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교, 평생 동반자로서의 학교를 지향합니다.

기초교과로 말과 글, 사회탐구(인권, 경제, 역사, 세계사), 과학탐구(환경, 천문, 생명과학), 체육,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등의 수업이 있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성교과는 연극, 미디어, 영화, 미술과 디자인, 음악(합창, 밴드, 기타, 소리와 몸짓), 나를 알기(분노조절, 의사소통, 성과 나, 건강교육, 포래상담, 평화교육, 꿈 분석) 등의 수업이고 자신의 신체와 감정 정서 등을 이해하고 예술적인 매체를 통해 자기표현을 다양화합니다. 연극, 영화, 사진, 음악, 미술 등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들을 표현함으로써 내면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하는 수업입니다.

자치교과는 4번 정도의 여행과 자치회의, 마을 프로젝트와 봉사학습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한 수업입니다. 봉사학습과 마을프로젝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동네에서 찾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성과 교과인 진로교과는 직업특강(자기홍미적성탐구 직업 알기, 자기소개서 이력서쓰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모의 면접), 직업체험, 인턴십, 프로젝트 수업 등이 진행됩니다. ‘세상을 보물 삼아, 사람을 희망삼아’라는 제목에서 보듯 다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접하며 보다 넓고 깊은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습니다. 진로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꿈틀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에 있는 자원과 다양한 삶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움을 만들어 나갑니다.

둘째, 자기탐색, 정보탐색, 다양한 체험에 이어 현장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길 찾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졸업 후에 관심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셋째, 표현예술 관련 수업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뿐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하나 됨과 배려의 즐거움을 체험합니다.

넷째, 10명의 아이가 한반으로 구성되어 교사와 학생들 간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졸업 후에도 언제나 찾아오고 기댈 수 있는 학교이며, 솔직하고 건강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다섯째, 스스로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

어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준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삶에 도전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감성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오감을 자극하는 교육은 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학습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사람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은 훨씬 생동감 있고 사회적 책임과 관계를 배우는 통합적인 교육이 됩니다. 학생들은 2년동안 40여명의 직업인을 만나며 자신의 모델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매년 거리축제와 꿈틀축제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꿈틀학교는 청소년이 사람들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세상 안에서 만들어나가고, 자신과 세상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여 세상을 보물섬으로 만들어 나가는 학교입니다.

김선옥 (꿈틀학교 대표교사)

민지
이야기

2년 전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둔 후 학교에 가는 것이 싫고 두려운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기다림과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단 생각에 꿈틀학교에 들어오게 됐다. 두려움이란 눈을 뜰 수 있으면서도 눈을 꼭 감고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 벌벌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 내 두려움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학교에서 얻게 된 관계들은 배움의 즐거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고 소중한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했고, 친해지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편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내게 많은 추억이 쌓였다. 여행준비도 함께 하고 여행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힘든 일도 같이 하다 보니 더 소중한 것 같다.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제일 크게 얻은 것은 뭐든지 한번쯤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과 용기다. 예전의 나였다면 춤을 춘다는 그 자체를 싫어했을 테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도 꺼려했을 텐데 꿈틀을 다니면서 용기가 뿜! 하고 나타났다. 그냥 함께 하나까 한다는 마음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내게 엄청 큰 변화다. 가끔 진로 수업을 할 때 마음이 좋지 않던 적이 있다. 그냥 막연히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내 꿈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서 좋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또 겁이 난다. 난 아직도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래도 두려움에게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현모
이야기

나는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일 년 동안이나 혼자 지냈고, 그 전에도 혼자 조용히 지내던 타입이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걱정됐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친해질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웠다. 지금도 내게 잘 대해주고 고민도 들어주며 많이 챙겨주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애들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잘 지낸다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애들한테 시큰둥하게 대했다. 내가 심심할 땐 말 걸고 고민이 있을 땐 내 고민만 들어주길 바랐던 것 같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멀어지고 더 어색해진 것 같고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해결될 일임을 알았다. 진짜 애들이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다. 왜 진작 느끼지 못했을까 후회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걸 느끼게 해준 애들한테도 고맙다.

꿈틀 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직업에 대한 탐구, 자기계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습관, 시험보다 생활에 쓰기 유용한 지식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로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 일반학교의 딱딱하고 재미없고 시험 보는데 말고는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이 없던 나에게 말도 많이 시키고 직접 행동해야 하는 것들, 꽤나 듣기 부담스러운 성교육은 어색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란 것을 알았기에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말소리를 크게 하고, 조금씩 나서서 행동하고, 소심한 성격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모든 일에 용기를 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배웠다. 변한 내 모습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고 선생님과 애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장훈이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나는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 대안학교인 꿈틀학교에 왔다. 오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이 걱정했지만 그래도 아는 형이 있어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에 대한 정리를 하는 동안 2학기가 시작됐다. 여름여행으로 '소름 워크숍'을 갔는데 소리가 좋은 북을 치면 뭔가 통쾌하고 똥 뚫리는 마음이 들어 더욱 열심히 쳤는데 선생님들이 내 몸에 흥이 있다고 얘기 해주셔서 기뻐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타악기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고 내 몸에 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팀 프로젝트 때 밴드에 들어가 드럼도 치고, 단기 멘토링으로 아프리카 타악을 하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타악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방학 때에도 계속 배우고 싶어졌다.

친구들,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편견과 장단점을 알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뻐다. 나를 좀 더 밖으로 내보이려고 노력하게 되기도 했다. 내 장단점을 몰랐던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내 편견은 스스로 내 능력을 단정 짓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게을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곤란한 상황을 웃음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이다. 장점은 '여유가 있고 흥이 있고 남을 편하게 한다' 정도가 있다. 장단점을 알았으니 이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없애고 싶다.

서진이
이야기

서진아, 나는 지금의 니가 자랑스럽다. 처음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꿈이 무엇인지 몰라', '이건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어' 라는 등 자신감도 없고, '남들보다 부족함이 많은 아이일 뿐이다'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졌어. 뭐든 피하기만 하던 네가 이제는 먼저 하겠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인턴을 하면서 네가 좀 더 끈기 있고 노력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 하지만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견스럽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진로에 차츰 길이 열렸다는 것이 가장 많이 바뀐 점인 것 같아.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너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내었고 이제 너의 꿈에 점점 다가간 것 같아 기쁘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정말 너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나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 이만큼 왔으니 다음 단계를 위해 발판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그 발판을 찾아내는 것이 너에게 남은 숙제와도 같은 것이겠지? 이제 너도 곧 성인이 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자세히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보단 적절히 대처하고 막힌 길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갈 줄 알면 좋겠다. 그동안 학교 수업과 인턴을 하며 배운 것들이 나중에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동안 잘 헤쳐왔으니 이제 니 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서진, 파이팅!



학부모 활동 시리즈 ② - 경남지부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눈높이에서 교육 정책을 모니터하다

여러분들은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참여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임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 네. 거기다 학교 내 학부모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학부모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잘 읽어 보시고, 내년에는 지역별로 지원하셔서 왕성한 활동 참여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은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모니터하는 활동입니다. 도무지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왜 시험은 이렇게 자주 보는지 혹은 왜 시험 성적을 이런 방식으로 공개하는지,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예·결산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바로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교육사업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아 갈 길이 멍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바로 잡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활동보다 더욱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정책 모니터단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과 역할

- 당해 연도 2-3월에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단원 모집 안내 공고가 탑재됩니다.
- 지원서에 자기소개서를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tip: 다양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년도별로 기재)
- 매년 4차례 과제를 수행합니다. (tip: 시·도 교육청별 모니터단 대상 - 사전 내용 설명회 및 모니터 활동 주안점 등 질의응답 시간을 병행합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부합니다.)
- 활동기간 내 학교, 학부모 면담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이후 개인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고들은 내용과 개선점, 기타 의견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tip: 학교 과제 담당교사와 사전 방문일정을 잡아서 방문합니다. 학부모 의견은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연락처를 공식 요청하여 연락처를 제공받아 전화로 모니터링 합니다.)
- 과제 내용에 따라 초·중·고 방문시기와 중점, 거점학교에 대한 사전 명단파악 협조를 요청합니다.

(tip: 방문학교 선정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 시험시기, 학교 별 자체 행사 등 주요일정을 확인 후 활동하는 센스!!)

- 방문 학교는 팀별 혹은 시·도교육청 지역별로 논의하여 정합니다. 2인 1조 방문 시 효과적입니다.

- 개인보고서는 팀별 보고서로, 다시 시·도교육청별 보고서로 교육부에 보고 이후, 시·도별 의견에 대한 총정리 및 모니터 결과 반영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대식, 해단식을 거치면서 전국 단위 학부모 모니터단의 주제별 토론 모임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 활동비가 궁금해요?

: 시·도 교육청별 예산 편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실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tip: 시·도 교육청별 해단식 때 우수 모니터단

을 선발하여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이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중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학부모가 되어 이미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회가 주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활동 못지않게 학교를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때로는 한 장의 종이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와 학부모, 교사가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학교,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상생하지 못하고 ‘우리 교육’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활동에 비해 교육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학부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2년 간의 이 활동을 통해서 ‘소통의 부재’를 또 한 번 체감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기존의 오류를 정리하고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서 나오는 다른 생각을 버리려했던 마음의 조각을 퍼즐처럼 맞추는 시간이었으며, 이 활동을 시작으로 지회 회원이 되어 준 친구가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을 통해 ‘참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자료가 복식부기로 바뀌어서 보기에 까다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공부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활동 범주도 지켜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지회에서 2~3명이 참여할 수 있다면 2009년부터 시작한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도 자리를 이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미선 (경남지부 지부장)

서식 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지원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주 소)			
연락처	()			
Email주소		직업		
자녀수		자녀위탁 학교명 (학년)	* 2012.3월 현재 재학중인 학교와 학년 기재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 작성예) ○○초 2학년	
○ 관심분야				
<input type="checkbox"/>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교육정책 및 제도일반, 교육과정 등) <input type="checkbox"/> 진로지도 (대학입시제도, 진로지도, 취학지도 등) <input type="checkbox"/>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창의인성지도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복지 (학생건강,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2010년	2009년	
모니터단 활동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 자기소개(1,000자 이내)				
* 교육분야 주요경력(경력)사항, 학부모회 참여사항, 관심분야, 지원동기 등 간략하게 기술				



한자혼용 말글살이는 일본 식민지 때 찌꺼기

지난해 10월 22일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가 헌법재판소에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일이 있다. 이들은 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회장 진태하)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국어교육 시간에 한자를 가르치고 한자를 함께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도우려고 국회 박인숙(새누리당 송파갑) 의원은 김세연(새누리당 부산 금정)의원들과 함께 요즘 교육법개정안을 냈다. 모두 우리 말글살이와 교육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주장들이다.

이들은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거의 7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약 25%나 되는 동음이의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어는 새의 두 날개처럼 한글과 한자, 두 글자로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억지요 잘못된 소리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한문나라 중국문화 그늘에서 살았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일본식 한자말과 한자혼용 말글살이에 길들어서 한자말이 많지만 실제로 오늘날 쓰는 한자말은 50%도 안 된다. 그리고 토박이말을 살려서 쓰면 30%로 줄어든다. 그리고 한글과 한자를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써야 좋다고 했는데 한글이란 날개는 크고 힘이 세지만 한자란 날개는 조그맣고 힘이 적어서 함께 쓰면 새가 날아가지 못한다. 이 또한 억지로 꾸며서 견준 말이다. 귀로 들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

일찍이 1995년 미국 유명한 과학자 ‘제어드 다이아몬드’는 “한자와 일본 글자 ‘가타가나’를 섞어서 쓰는 일본이 가장 불편하고 미개한 말글살이를 하는 나라다. 한글은 가장 과학체계를 갖춘 으뜸 글자이고 한글만 쓰는 북한이 가장 편리한 말글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유명한 학술지 ‘디스커버지’에 써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 그가 서울에 왔을 때 그가 세종호텔에서 한글모임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처럼 한자를 혼용하려고 애쓰는 한국이 답답하다.”며 안타깝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오늘날 학교 교과서나 전문 서적에 나오는 한자말은 거의 일본 식민지시대 길들어진 일본식 한자말이고 이 한자말을 섞어서 쓰는 말글살이는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제로 뺏고 식민 통치를 쉽게 하려고 길들인 일본식 말글살이다. 1886년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가 한문만 써서 내던 ‘한성순보’를 ‘한성주보’로 이름을 바꾸고 한자혼용신문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조선인들에게 일본처럼 한자를 섞어 쓰는 말글살이에 길들여서 앞으로 조선을 쉽게 통치하려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한성주보를 한자혼용으로 낸 까닭을 밝힌 일이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유년에게 일본의 혼 주사하고자 한자혼용해

조선인 가운데 처음 한자혼용 책을 냈다는 유길준이 1895년에 쓴 ‘서유견문’은 일본 게이오대학을 설립하고 군국주의 명치유신 이론을 만들어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게 한 일본 군국주의 창시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서양사정’이란 일본 한자혼용 책을 베껴 쓴 책이다. 유길준은 일본 유학시절 그를 따르고 우러러보아 그의 양아들이란 말까지 있다. 그리고 1906년 6월 6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유년에게 일본식 한자혼용 교과서를 익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뇌수를 뚫고 일본의 혼을 주사하고자 함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 모두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쓰는 말글살이는 일본 군국 식민지 통치 찌꺼기로서, 일본처럼 한자혼용을 하자는 것은 일본 식민 교육정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말글독립과 정신독립을 가로막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처럼 한자혼용으로 쓴 책들을 읽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한자를 함께 쓰자는 자들 가운데 식민통치 앞잡이 양성소였던 경성제국대학 출신 학자의 제자가 많고, 일본 법률 문장을 그대로 베낀 우리 법전으로 공부한 판검사 출신과 친일 기업인이 많은 것이 그 까닭이다.

그리고 일본 글자 가나는 한글이나 로마자보다 뒤떨어지는 소리글자여서 제 글자만으로는 말글살이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자란 뜻글자를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글자다. 그래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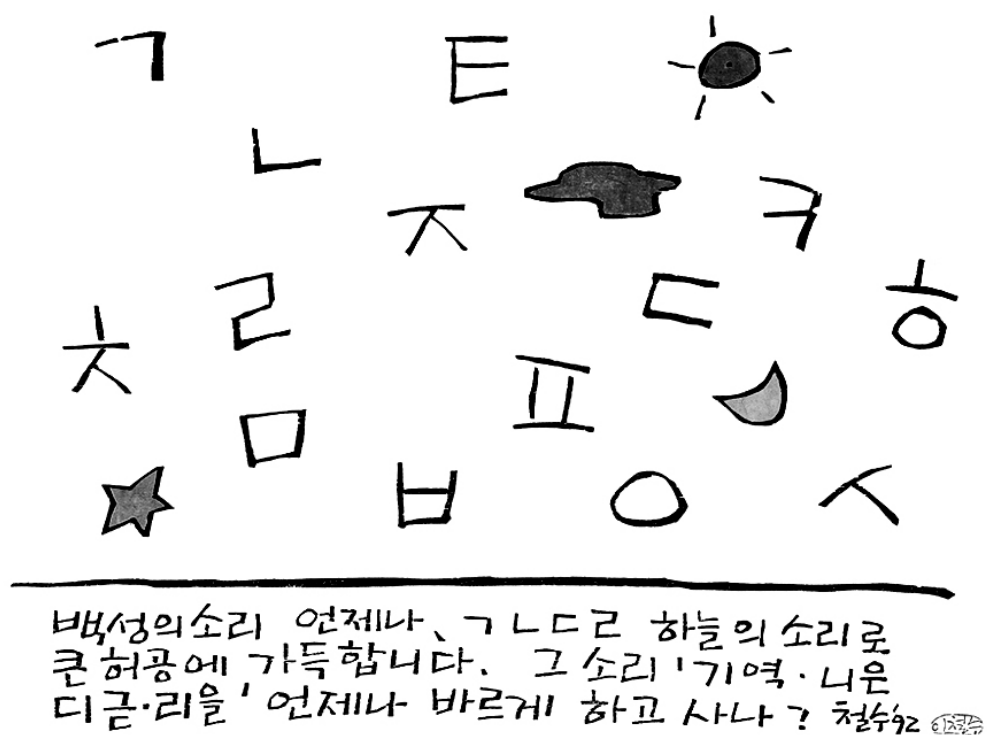
본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두 글자를 쓰는 나라이며, 한자를 계속 많이 쓰고 배우는 것인데 완전한 한글을 가진 우리가 일본처럼 절름발이 국어생활을 하잔다.

온 국민이 한글 사용해 우리 자주문화 활짝 꽃 피워야

더욱이 한글 때문에 온 국민이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문화가 꽃피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나라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때에 한글을 더욱 빛내고 우리말을 바르게 써서 우리 자주 문화를 더욱 활짝 피울 생각은 안하고 일본 식민지 때처럼 한자혼용 하는 것이 “국어생활 정상화”라니 답답하다.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진 일본 한자말과 일본식 말투로 계속 전문 서적과 교과서를 만들면서 그 책을 읽으려면 한자 더 가르치고 쓰자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애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 말글살이를 어지럽혀서 나라와 겨레를 망칠 일이다. 저들 말대로라면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이고, 텔레비전 방송도 한자 자막을 꼭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정부와 학자와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귀로 들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에 더 힘쓰자. 일본이 몰려간 지 70년이 다 되는 이제 는 제 정신을 찾고 일본식 한자타령을 그만하자.

리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립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관련 2차 공청회

2013년 3월 경기도 모든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

경기도 교육청이 2013년 1월 18일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3월1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부모들로 학부모회가 구성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권리

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로서 공공적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배움 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제13조(보호자)의 참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교육공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로 법적근거를 가진 학부모회는 모든 학부가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원이 되고, [학급 학부모회] - [학년 학부모회] - [학부모회]로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에 건의하거나 제안할 내용을 학급에서 학부모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담당했으나 학부모 대표만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 근거를 가진 학부모회는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역사의 선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궁금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 학부모회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한 점은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각 학교 학부모회 운영 예산도 편성하여 불법 찬조금 조성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3년 3월 학부모회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학교현장에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다. 학부모회 조례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학부모임원을 선출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발생했고 혹시나 발생할 학부모 간 갈등을 염려하여 선출될 임원 수에 맞추는 일도 일어났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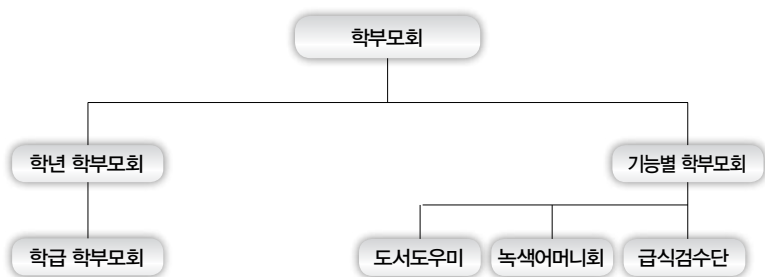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기구로 만든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주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완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학부모회 조례 초안은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교장, 교사, 학부모 대표들의 반대로 상당부분 수정된 상태로 도의회를 통과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따로, 학부모회 따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굳이 학부모회를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다.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를 뽑고 이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민주적 의사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라는 자리를 통해 학교와 관련된 혹은 아이 학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러내 놓고 얘기하고 조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옆집 아줌마를 통해 전해 듣는 주관적인 학교 정보에 의존하여 학교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 한해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교육청은 학부모회 조례의 취지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부모회에서 모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박이선 (부회장, 정책위원장)

학부모회 조직 구성의 예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 최초, 광주 최초, 학교자치조례의 향방

민주주의나 인권이란 것은
공부를 통해 머리와 이론으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체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1월 학교자치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제정되었다. 1만 7,891명의 주민이 발의에 참여하여 광주시의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4월 22일 교육부는 광주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재의결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동시에 조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주민들이 직접 학교자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둘 것을 요청하여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다. 교육부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시의회는 다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모자라 급기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회에서 학교자치는 필수적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의 범위운운하며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자치조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어서 이렇게 요란할까?

학교자치조례란 이름자체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듯이 학교 안에 자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학교가 교장의 독점적 권력 행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첫째로 교사의 교권과 관련된 교사회, 둘째로 학생의 학습권 및 자치권과 관련 있는 학생회, 셋째로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운전면허 이론시험과 실기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민주주의나 인권이란 것은 공부를 통해 머리로 이론으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스스로 실제로 자치회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체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다. 학교 안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자치 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배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듯 학교자치조례

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될 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며, 학부모 역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의장이나 교육감이나 시장이 아닌, 주민 발의에 의한 것 역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어떤 명분으로 학교자치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일까?

올해 1월 광주시의회에서 학교자치조례가 의결되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재의결을 요구해 올해 3월 광주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었다. 게다가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에 제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 의결과 재의결을 거친 만큼 이를 존중해 제소지시를 거부하겠다.”라고 맞서자,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조례의 내용 중 ‘교육감과 교장이 교사가 결정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존중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한침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감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 개입했다’라고 보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광주시의회는 재의결을 거친 광주학교자치조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법령위법성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자치 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과정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자치 기구가 운영되는 것은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험하는 현장이 학교가 되기 때문에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오히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통해서 각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보다 많은 의견 교환과 소통으로 조례내용이 치밀하게 다듬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교육이 학교자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명자 (광주지부 상담실장)





의왕지회는요~~

2012년 4월 2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왕지회는 학부모 단체가 전무하다시피 한 의왕시에서 처음 15명의 학부모들이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지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창립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차인 신생지회지만 앞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학부모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상근 (의왕지회 부지회장)



거제지회 체험학습지도자교실을 진행하고 있어요.



고양지회 서울성곽답사를 다녀왔어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지회 들꽃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지부 4월 8일 식생활네트워크 회의, 2013년 식생활 교육 등을 논의했어요.



대구지부 4월 10일 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자살예방대책토론회 다녀왔어요.**동북부지회** 4월 26일 둘레길 따라 문학기행을 수락산 천상병 시비로 다녀왔어요.**서부준비위원회** 놀이지도사양성과정을 진행했어요.**성남지회** 2013년 품앗이 부모교육양성과정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어요.**울산지부**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부모학교 강좌를 진행중입니다.**의정부지회** 4월 2일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간담회2**전주준비위원회** 아이표 영어 소모임 4차에서의 유쾌한 모습들.**정읍지회** 창립 8주년을 맞아 방장산으로 가족산행을 다녀왔어요.

제3회
경기지부 가족한마당

* 일시 : 2013년 6월 1일(토) 김포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경기지부 카페에 공지

서울지부 서부지회 창립총회

* 일 시 : 2013년 6월 8일(토) 오후 2시
* 장 소 : 서부지회 사무실
* 축 사 : 임광빈(의주로교회 담임목사)
전은자(서대문구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
* 격려사 :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특 강 : 이계삼(청춘의 커리큘럼, 변방의 사색, 삶을 위한 국어 교육 등 저자)

지부지회 소모임 - 울산지부 아버지 모임

미남들의 수다(美喃之笑)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남성들도 마음껏 수다를 떨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만든 소모임이 '미남들의 수다'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남들의 수다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

논어의 한 구절인 이 구절은 '내가 하고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처음부터 어렵게 이런 단어를 구사하느냐고요? 동서양 고전읽기를 하기로 정하고 현재 1년여 가까이 진행하고 있어 공자님의 아주 유명한 구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21세기는 물질문명에서 정신문명으로 나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조들의 3천년 지혜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혹여 물질로 나아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라는 고전 속 삶의 교훈이 던지는 강

한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미남들의 수다'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매월 한차례씩 모임을 갖고 있고, 호응도 날로 높아지고 있지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전은 '논어'라는 경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경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공부는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비우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고전읽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어, 사주명리학, 서양철학 등의 주제로 이어갈 계획이고 참학 울산지부에서 이야기의 꽃인 뒤풀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울산지부 임원진에게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주시는 것에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백남걸 (울산지부 회원)



‘미남들의 수다’를 함께하며

작년 6월 15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살아감에 대한 의미를 가지려고 인문학 모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참학 '아버지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몇 달이 지나 '미남들의 수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5명이 모여서 이런 저런 세상살이 이야기로 인문학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동양적 시각과 서양적 시각으로 가닥을 잡은 후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적 관점에서의 인문학 화두인 논어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문에 조예가 있으시고 논어를 오래 접해 오신 백남걸 회원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인문학의 화두인 논어를 대하니 세상을 보는 깊이가 더해집니다. 백선생님께서 공자의 '인' 사상을 대학, 중용, 맹자 등 폭넓게 아우르며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이며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을 가다듬는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여기에 서양학적 관점을 맛깔나게 더해주시는 임명희 회원님이 계셔서 깊이를 더해줍니다.

'미남들의 수다'의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 이제 8명으로 회원이 늘어 다양하게 세상 보는 맛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한차례 만나서 시간을 조절해가며 모두가 함께 모여 열정을 느낍니다. 난로 가에 모인 사람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눈빛은 촉촉하게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논어를 함께하니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함을 느낍니다.

'미남들의 수다'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 색을 가지고 도움을 주며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씨앗으로 한자리를 만들길 빌어봅니다.

김성우 (울산지부 회원)

상담실에서

고3 아들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 아이가 일반고 직업반에 다니고 있는데 3학년은 정규과정으로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받아야 한다. 3학년 일 년 동안은 자동차 관련 위탁교육 센터에 다니고 졸업장은 아이가 다니는 인문계고에서 준다. 그런데 아이는 직업 훈련교육을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 도저히 적성에 안 맞는다며 자퇴서를 쓰고 나왔다.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도중에 그만 둔 선례가 없다며 난감해 하면서 센터장이 출장에서 돌아와 자퇴 허가서를 써 줄 때까지 센터에 등교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는 인문계고 진학반으로 돌아가 대입 준비를 한다며 센터엔 다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인문계고 담임은 센터에서 자퇴 허가서를 받으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한다. 문제는 그때까지 아이가 센터에 등교해야 하는데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학교도 센터도 모두 아이에게 그렇게 책임감과 성실성이 부족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며 비난한다. 물론 나도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아이의 등교 거부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아이를 무조건 다니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다. 혼내도 소용없다. 아이는 어른들은 모두 자기 생각을 무시한다며 어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고집을 부리면서도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있다. 그런 아이를 보면 또 가슴이 아프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내가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건가. 여기저기서 욕만 먹으니 정말 힘이 든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 아이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려고 해서 당황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아이가 위탁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학교나 부모님께서도 수긍을 하고 본인도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아이의 주장은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어떨런지요. 아직 진로 탐색의 시기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미래 문제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책임감이 없고 성실함이 부족한

것으로 단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센터장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 다니는 것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학교에 돌아가 입시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센터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책임 있는 행동임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와 엄마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 아이가 이 일로 비난을 많이 받았고 본인도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어머니의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이가 모두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엄마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알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번 일로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실패가 두려워 앞으로 있을 여러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시행착오는 나쁜 것이 아니고 살다보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데, 다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가 용기를 얻고 엄마를 더욱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글

내가 마시는 아버지의 소주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녁식사 때 늘 반주를 하셨다. 소주 반 병. 안주 같은 안주가 없어도 그러하셨다. 푸성귀만 있어도 안주 삼아 소주를 드시고 나중에 입가심 하듯이 밥을 몇 술 뜨셨다. 식당에서 잔술을 팔던 시절이 있었다. 설령탕을 먹으러 가도 아버지는 소주 반 병을 반주로 드시고 반 병은 뚜껑을 닫아 남기셨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나는 싫었다. 저녁마다 반주를 하시는 모습도 싫었고, 더욱이 반 병만 드시고 나머지 반 병을 남겨 놓는 모습은 궁상맞아 보여 더 싫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도 그러고 있다. 내일 브리핑이 있어서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일하며 저녁을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벌건 국물을 떠먹으며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아버지의 바깥간 얼굴빛과 나의 얼큰한 얼굴이 컴퓨터 모니터 안에 오버랩 된다.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남을 문득 깨닫는다. 묘한 웃음과 두려움이 스며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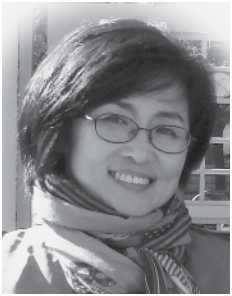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 놈. 학교 숙제를 미루고 버티다가 잠이 들었다. 내일 아침 또 눈 비비며 얼렁뚱땅 해 치우고 바람처럼 현관문을 나설 것이다. 그 놈에게서 또 나의 뒷모습을 훑쳐보게 된다.

그 놈 내 아들 맞다.

엄형석 (김정인 13기 정상담원 부군)

마중물(14)

모래 알갱이와 가창오리 떼



요즘 한 짐을 털은 나는 사물이나 살아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을 보고나면 여러 가지 엉뚱한 상상과 함께 골똘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

‘모래 알갱이와 가창오리 떼’

언뜻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다. 스무고개를 하듯 물음을 던져보면 우선 ‘무생물과 생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진행시키면 ‘셀 수 없이 많은 것’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 가창오리 떼의 군무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그 많은 개체가 하나이트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런데 철새 도래지에서는 이렇게 떼를 지어서 함께 생활하며, 자신만의 세계가 없어 보이는 가창오리 떼도, 서식지인 캄차카 반도나 시베리아 대평원에서는 무리가 아닌 자신만의 넓은 영역을 확보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나의 고정관념이 깨졌다.

또 하나, 최근에 현미경으로 250배 확대된

모래 알갱이 사진을 보면서 ‘와 예쁘다’라고 감탄하는 순간, 시야에 들어온 모래 알갱이 하나가 다 각기 다른 모양이었다. 암석 부스러기라고 알았던 모래 알갱이에 암석 성질도 드문드문 있었지만 많은 부분 각종 조개껍질들이 닳아져 자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제각각의 모양과 색깔로 빛을 내고 있었다. 심지어는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도 닳고 나니 아주 예뻤다. 이렇게 하잘 것 없이 스쳐지나가는 모래 알갱이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감탄을 지어낼 정도로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난 얼마나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고 고유한 존재로 보았는가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물음을 먼저 던져 보았다. 우리 어른들은 곧잘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로 인해 아이들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요즘 흔히 거론되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를 ‘남발’하는 사회를 한 예로 들어 보자. 전문가의 진단을 믿어야겠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안한 부모, 지쳐버린

교사, 돈벌이하는 의사, 이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잃은 채 시들어 간다. 말로만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가창오리 떼와 모래 알갱이를 보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겹쳐졌다. 누구를 위해 심지어는 자식, 학생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어른들 스스로 성찰하며,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 먼저다. 어른들이 행복할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듯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삶과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문득 느끼는 요즘이다.

장은숙 (우리회 고문)



발칙한 학부모 인터뷰 - 마을공동체 꿈틀 : 최명선

꿈틀이들의 행복한 마을살이



본인과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참교육학부모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틀지기 ‘까망’ 최명선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고1인 큰딸과 초등학교 3학년인 껌딱지 군이 있습니다. 껌딱지 군은 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한답니다.

꿈틀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벌이를 해야 하고, 늦은 결혼으로 한자녀가정이 늘어나면서 혼자 자라는 아이들, 부모만이 키우기 힘든 사회 환경, 마을에서 쫓겨나 학원에 갇혀있는 아이들, 2% 부족한 혁신학교, 그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12명의 꿈틀이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꿈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꿈틀은 마을공동체라기보다 풀뿌리공동체 또는 또 다른 가족공동체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흥은2동 주민센터 2층에 자리 잡은 꿈틀은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신청하면서 서대문 학부모네트워크 꿈틀로 시작하여 마을 어른과 청소년, 대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흥2마을공동체 꿈

틀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지요.

올해는 동장님의 허락으로 옥상 화단을 텃밭으로 개간하여 ‘꿈틀 옥상 텃밭’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꾸고, 꿈틀이들의 마을이야기를 담은 ‘꿈틀신문’, 고등학생 자원봉사팀 형님들과 수·과학 시간에 ‘허브 화장품’ 만들기과 ‘꿈틀 마켓’ 활동을 하며, 연세대 형님들과 ‘연세대 캠퍼스 텃밭?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대학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틀의 운영은 꿈틀맘들의 육아에 대한 공감 나누기와 운영회의를 통해 자생력 있는 꿈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꿈틀 활동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보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공부(학습) 안하고 놀기만 한다고 불만해하던 학부모들도 꿈틀이들의 행복한 마을살이로 아이가 학교와 선생님의 틀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가 아이의 시선에 맞춰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새싹의 작은 꿈틀거림이었지만,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과 청소년, 대학생, 마을 어른들이 함께 마을 살이 하는 ‘꿈의 틀’로 자라고 있습니다. 꿈틀, 화이팅!

자유투고

더 이상의 슬픔이 없기를 바라며



지난 3월 지방의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다. 학생의 유서 마지막 말에 필자는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에서 이토록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가슴속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

교육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교육 정책에 있어서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로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인성적 측면은 배제하고 성적으로만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학생들은 특목고·명문대 등으로 추구하는 교육정책에서 오는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래 학생들에게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단순한 캠페인과 예방운동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방관자적 학교의 문제점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 간의 서열화 싸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서열화 싸움에서 학교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서열화 싸움이 지나면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서열화 됨으로써 교사가 지도하기가 편해진다는 잘못된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교사의 문제점이 있다. 학생들 간의 서열화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학교는 더 이상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국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에서도 방관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문제점

자녀는 부모가 진정한 친구가 되길 바란다.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그들 자신이 친구라 생각할지 모

르지만, 친구가 아닌 관리자의 모습일 것이다. 그 관리자의 모습에 학생들은 자기 잘못을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어 더욱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기를 살린다고 잘못된 리더십을 가르치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학생 간의 문제점

학생들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입장을 풀지 못하고 단편적인 측면만 보고 다툼이 발생한다. 다툼으로 인한 원인을 들여다보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가 자기주장만으로 이유를 만든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살펴보면 서로 간의 소통부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학생 간에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서 우리 모두가 방관자이며 가해자이다.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경아 (천왕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청소년 문화 ② 광주지부 청소년 역사기행

〈편집자 주〉대한민국 청소년은 ‘오늘’이 없다. 오직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청소년은 설 곳도 없고 누릴만한 프로그램도 없다. 하지만 어려운 입시 교육 속에서도 ‘오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청소년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례들이 있다. 청소년,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가 어떤 청소년 문화를 꾸릴 수 있는지 탐색해 보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역사



봄의 기운을 느끼기 어려운 4월 중순, ‘우리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한 위대한 발견’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익산으로 역사기행을 떠났다.

첫 도착지는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도 많이 보았던 미륵사 터였다. 거대한 크기의

당간지주를 처음 만났다. 당간지주란 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달아 세우는 장대인 당간을 지탱하기 위하여 세운 두 개의 기둥으로, 이 절이 얼마나 컸으면 당간지주도 이렇게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다음은 해체되어서 복원중인 서탑을 보았다. 미륵사 서탑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무너진 서탑을 복원한답시고 시멘트를 부어서 한쪽 면만 제대로 된 탑의 모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난 항상 미륵서탑을 한쪽 면만 보아서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줄 몰랐다.

탑을 구경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다. 지금까지 미륵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대로 서동요의 주인공인 무왕이 선화공주의 부탁을 듣고 지은 절이라고 해석되어 왔지만, 미륵사 탑을 분해하면서 발견된 사리장엄에 의해 무왕이 지은 것

이 아니라 백제의 어느 귀족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 절을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한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묘라고 추정되는 쌍릉으로 향했다. 약 200m의 거리를 두고 두 개의 묘가 있었는데 백제시대 7세기의 전형적인 형태의 굴식돌방 무덤이다. 이 무덤양식은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놓아서 도굴이 잘 되었다. 하지만 신라는 돌무지 덧널무덤(돌을 쌓아 도굴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만든 무덤)을 만들어서 금관같은 유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점심을 먹고 고도리 석불입상을 보러갔다. 고도리란 옛 도읍지라는 뜻을 가진 마을이름이다. 풍수지리설에서 명당자리의 조건이 산에 둘러싸인 곳이지만 이 고도리마을은 남쪽이 뚫려있어서 남쪽을 막기 위해 석불입상을 세워 비보역할을 하도록 했다.

고도리 가까이 왕궁리 5층 석탑이 있었다. 이 석탑은 백제 것인지 신라 것인지 논란이 된다고 한다. 난 이 탑이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 같다. 통일신라사람이 백제 석탑의 모양과 신라 석탑의 모양을 서로 조화시켜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왕궁리에서 최초로 화장실 터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나와 친구들은 ‘백제 사람들은 무엇으로 똥처리했을까?’ 궁금했는데 전시실에서 나무 막대를 이용해

서 똥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와우! 휴지를 만들어 주신 김벌리라는 분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화암사라는 절에 갔다. 화암사는 내가 다녀본 절중에서 가장 작고 포근했다. 이 절은 올라오는 길이 아름답고, 산속에 있지만 산중 사찰 느낌이 없고, 하양식 구조 건물(지붕에 나무를 덧대 지은 양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번 역사기행은 기존에 있던 역사적 사실이 새로운 발견을 통해 바뀐 곳을 다녀온 것 같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역사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역사는 답이 없는, 그러니까 답이 어떤 것이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도희 (송원중학교 2학년)



방송모니터(5)

EBS 다큐 프라임 ‘술의 경고’를 보고 이미 술의 경고는 시작되었다



한국 영화를 즐겨보는 외국인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 영화 속에 곧잘 등장하는 초록색 병이 뭐냐는 것이다. 술병이 영화에 중요 소품으로 자주 등장할 만큼 술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성인 남자들만 술을 많이 마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 3월 말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송된 ‘술의 경고(3월 25일, 26일 방송)’의 내용이다. 1부,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 2부 ‘알코올에 사로잡힌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부와 청소년들의 음주 실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조명하였다.

1부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키친 드링크어의 중독 사례를 들고 주부를 중독으로 이끄는 가정과 사회의 배경, 음주로 무너지는 가정과 금주 방법을 다루었다. 2부 ‘알코올에 사로잡힌 아이들’에서는 인체, 특히 뇌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술을 끊지 못하는 청소년의 음주문제를 파헤쳤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음 술을 접하는 나이는 평균 13세, 이후 친구들과의 사교를 위해 또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시는 모습이 비춰졌다. 실험을 해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사기는 쉬웠고 술 마실 장소도 많았다. 유명 연예인들은 술 권하는 광고를 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음주교육은 없었다.

사실 이 다큐에서는 청소년의 음주현장은 보여줬지만 정작 청소년 알코올중독 사례를 콕 집어서 보여주지 못했다. 또 청소년 음주의 실상과 추이를 정확한 통계수치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장 및 가정 취재, 다양한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 음주통제정책의 강도는 OECD 30개 나라 중 22위에 불과하다. 다큐에서도 청소년 음주통제 노력의 예로 학교의 음주교육, 거리캠페인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그것으로 되겠는가?’라는 마음이 시청자라면 다 들었을 것이다. 이런 미적지근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술에 빠진 우리 청소년

들이 죄책감, 우울증, 자살충동을 느끼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는 모습이 비춰졌다.

이에 비해 외국의 사례들은 단호하고 신선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미국 술집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는 신분증 검사, 술 광고에 25세 이상의 무명 배우만 출연시키는 규제, 술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음주 허용나이인 21세가 되자 온 가족이 술집에 가서 축하해주는 미국 가정의 모습은 가정이 음주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여겨졌다.

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음주도 조만간 청소년 문제로 떠오를 소지가 크다. 이 다큐에서는 터지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지금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외국의 예를 들어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술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우는 한편 올바른 음주문화를 뿌리내려서 청소년들을 지키고 온전한 미래를 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옥연희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회원)

책소개



『블룸카의 일기』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글·그림
이지원 옮김, 사계절, 2012.

소리 없는 가르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여기 한 권의 그림책이 있다. 장면 하나, 화면 한 장 넘기기가 무척 어렵다. 장면을 읽을 때마다 나를 되돌아보고 깊은 숨을 몰아쉬게 만든다. ‘책을 밀쳐놓고 당신 스스로 생각의 실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책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는, 야노쉬 코르차 말처럼 술한 질문과 성찰을 하게 한다. ‘소품 가는 거’라며 유대인

아이들 손을 잡고 트레블링카 집단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 야노쉬 코르차의 삶이 그려진 『블룸카의 일기』는 그런 그림책이다.

이야기는 야노쉬 코르차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 사는 블룸카의 일기로 진행된다. 책표지에는 코르차이 왼쪽 아랫부분에서 뒤로 고개를 젖힌 채, 위쪽 가운데에 앉아있는 계집애를 올려다보고 있다. 어린이를 대하는 코르차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그림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화면을 수평으로 나누어 위아래로 배치된 그림은 어른의 시선과 정면을 응시하는 계집애의 당당한 눈을 통해 인물의 관계가 어떠한지 추론하게 한다. 계집애를 올려다보는 어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지하며, 다리를 끌어 모은 채 앉아있는 계집애는 당당하고 안정적인 눈빛이다. 계집애가 공책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앞면지에는 비슷한 크기의 속옷들이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다. 오른쪽 화면 끝에 걸린 속옷이 반쯤 잘려 있는데 그 때문에 독자는 저마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빨랫줄에 걸린 속옷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블룸카의 일기』는 연필선이 드러나는 그림을 올려붙여 입체감을 살리는 폴라주 기법을 써서 등장하는 인물과

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 인물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한편 무채색과 채도가 낮은 단조로운 그림은 전쟁으로 피폐한 시대적 배경을 떠올리게 하고, 고아원이 주는 공간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글이 침묵하는 이야기를 그림이 대신 말하면서 인물의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림책 읽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야노쉬 코르차는 선생과 어른이라는 권위로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속옷을 빨아 주며, 어른과 아이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자발적인 경험을 존중하고, 어린이가 현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타고난 천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감동과 반성으로 다가온다. ‘성급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신념, 어린이에게 내일을 살 것을 강요하는 목소리, 교사(어른)가 원하는 대로 교육하며, 어른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아이를 찬양’하는 우리에게 코르차는 참, 불편한 존재다. 그 불편한 존재와 직면하여 소리 없는 가르침을 들은 뒤 아이들을 만난다면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의 눈과 입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거라 기대한다.

최은희 (충남 아산 배방초등학교 교사, 그림책 연구가)

사설

무상교육 정신을 훼손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 항소 기각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2012나 62515)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위헌(2010헌바 220)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승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의 판결과 무상교육의 원칙을 무시하고 학부모 원고인단의 소송을 기각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된 2002년 이후에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우리회를 중심으로 학부모 대표 118명은 2007년 10월 헌법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의거,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이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온갖 방법으로 자녀 학교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종용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굴하지 않았다. 학부모 원고인단의 헌신의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얻어냈다.

이렇듯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제도적으로도 실효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학교장의 징수처분이 당연히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법률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행위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존립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방법도 없다.

이번 소송은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이득금 반환도 중요했으나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이 더 큰 목적이었다. 비록 학부모들의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도록 이끌어 내었다. 앞으로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국가가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과 보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소한 OECD 기준으로 공교육비를 확충하도록 더 많은 힘을 쏟을 때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989년 9월 22일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학부모들이 창립한 교육운동 단체로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 어린이·청소년체험활동·교사·자녀와 소통훈련·부모역할훈련
- ★ 교육과정 안내 등 새내기 학부모교실 운영·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지원
- ★ 학부모의 눈으로 교육정책 개발과 연구
- ★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실운영
 - 자녀인성과 진로·전입학 등 자녀교육 상담
 - 인권·체벌·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와 안전공제회 보상문제 상담
 - 학교·교사 문제·불법찬조금·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관련 상담
 - 학교폭력문제 갈등조정자 훈련 등 전문상담원 양성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은 자녀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단체의 전문성을 갖춘 국내 유일한 학부모를 위한 상담실입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393-8900
학부모상담실 전화 상담
02-393-8980
사이버상담
<http://www.hakbumo.or.kr/학부모상담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 되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회 활동에 동의하는 일반인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회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며 여러분의 회비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출금(CMS) 이용하기

- 홈페이지(www.hakbumo.or.kr)방문. ‘후원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로 전화(02-393-8900)주시거나 출금 약정서에 기입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신한은행 100-014-533161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박범이 창간일 1991년 5월 1일
기획위원 고경환 김은영 김정인 송환웅
이옥주 정 방 조혜옥 최주영
주 소 (우)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7-14 2층
전 화 02-393-8900 전 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amhak
트위터 @chamhak 디자인제작 씨앤커뮤니케이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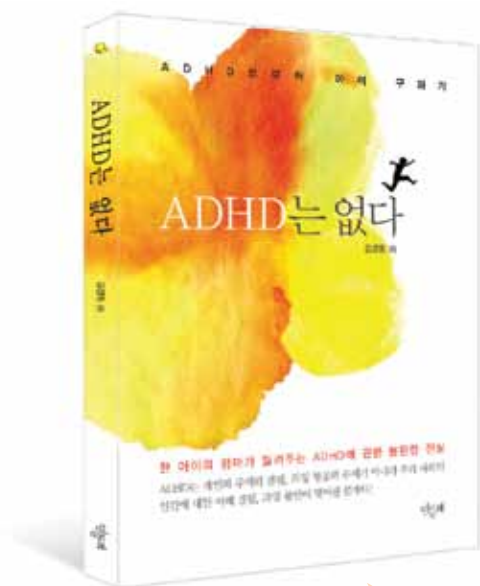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부회장 박이선 송환웅 최선미
감사 김석순 유지숙 임명희 학부모상담실장 고유경
정책위원장 박이선 조직위원장 최양희 사무처장 이정숙
상근자 김은영 조혜옥 한분수

서울지부	010-8733-0207	지부장 강혜승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김해수
	동북부지회 02)902-9246	지회장 나명주
경기지부	031)864-3958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김양완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이정숙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이민애
	수원지회 010-2896-8400	지회장 안용정
	안양지회 010-4216-0893	지회장 김민영
	양주지회	지회장
	용인지회 010-6259-7499	지회장 임유진
	의왕지회 010-4222-3148	지회장 박향숙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장윤영
	거창지회 010-3867-6607	지회장 유수상
	김해지회 010-5040-3296	지회장 성명자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진인애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경북지부	010-4511-9143	지부장 신현자
	경주지회 010-6266-8796	지회장 신경진
	구미지회	지회장
	상주지회 010-2276-2838	지회장 김미경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칠곡지회 010-4941-4456	최순필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전금순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이경자
	광양지회 010-8617-8201	지회장 박치현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최정희
	목포지회 061)284-6574	지회장 김승진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화순지회 010-2619-9136	지회장 문은아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충남지부	010-5420-3979	지부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천안지회 041)548-6674	지회장 신선정
	홍성지회 010-2614-2208	지회장 김순희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임진희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오미경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객선휘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종
준비위원회	서부 010-8913-6833	위원장 송성남
	아산 010-7688-4660	위원장 김경숙
	전주 063-287-6070	사무국장 장아름

자문위원회 ●이규환(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수/강령숙(배재대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영귀(변호사/강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권정혜(놀이 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교수/김명신(서울시 의원/김민남(전 경북대 교수/김영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 국회의원/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성열관(경희대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임교사/송병춘(변호사/송순재(강신대교수)안성문(제일합동법률사무소)/이광철(민변사무처장)/이윤미(홍익대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교수/전양숙(서울시립대 소장/정홍택(성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최문순(강원도지사/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어린이도서관 공공교실 관장)

“ADHD는 개인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 결핍, 과잉 불안이 빚어낸 문제다!”



한 아이의 엄마가 들려주는
ADHD에 관한 불편한 진실

ADHD는 없다

김경림 씀 | 값 12,000원

약물치료는 학교를 위한 최선일 뿐,
아이에게는 최악의 선택이다!

“나는 이 책에게서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려 한다. 또한 ADHD에 대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 약물치료의 위험성과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나 의사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야만 하는지, 부모가 교사나 의사의 입장에 동조해서 아이를 대상화할 때 아이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블로그 'ADHD로부터 아이 구하기' _ <http://blog.naver.com/motherswell>

아이에게 내가 배운 것
ADHD의 불편한 진실
ADHD 치료제라는 것은 없다
누구를 위한 약물치료인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이유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
ADHD에 대한 오해들
학교생활이 힘든 더 큰 이유
담임교사가 끼치는 영향
ADHD는 문제가 아닌 재능이다
주의산만이란 소리를 듣는 이유
사람을 꿰뚫어보는 아이들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진 아이
ADHD, 뇌의 문제인가?
재능이 어째서 문제가 된 걸까
아이가 당황하는 이유
ADHD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라
학교보다 아이가 중요하다
약물치료에 반대하는 이유
ADHD 진단 자체의 부정적 영향
교사와 의사의 입장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은
과잉불안으로부터 나오기

출간 기념 대중강연회 안내

일 시 | 2013년 5월 11일(토) 오후 2시
장 소 | 하자센터 하하하하하(서울 영등포)
참석자 | 김경림(ADHD는 없다) 저자
신순화(두려움 없이 엄마 되기) 저자
조한혜정(연세대 인류문화학과 교수)
참가신청 | mindle98@empas.com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민들레** 0) 322-1603 | mindle98@empas.com | www.mindle.org



회원네가게



주문전화 : 010-2731-9696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066-693530 이혜정



취침 (4만 5천원 / 52포)

구성: 국내산 생 취(겨울 취) 100% / 압착식
효능: 고혈압, 동맥경화, 피로회복, 숙취 해소
위장·간장 보호, 피부미용 효과
에스트로겐 다량 함유 -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한우 사골곰탕 (3만 2천원)

1**, 1* 등급의 100% 한우뼈를 가마솥방식으로 우려내어 찐~하고 담백 (무방부제, 무첨가물, 무색소)
구성: 국내산 한우사골
600g(2인분) x 4포 레토르트 파우치 포장



홍삼 엑기스

구성: 1) 6년근 100% - 20만원 / 60포
2) 6년근 + 미삼 - 15만원 / 60포
3) 미삼 100% - 5만원 / 60포
효능: 항암작용, 당뇨·빈혈·골다공증 예방, 면역기능강화
뇌세포생장촉진, 방사능방어작용, 갱년기에 효과



양파즙 (3만 5천원 / 50포)

- 양파 종류별 가격별도, 계절별 변화
(적색, 양지+출입, 어성초, 삼백초, 함초, 한방, 흑마늘양파)
구성: 100% 양파 엑기스(무방부제, 무향료, 무설탕)
효능: 피로회복, 콜레스테롤분해, 당뇨예방, 위장강화
숙취해소, 간기능 강화, 항암효과



헛개 엑기스 (7만원 / 60~65포)

구성: 헛개열매, 헛개나무, 구기자, 황꽃, 민들레
효능: 간기능 보호 및 강화
숙취해소
피로회복



오가피 엑기스 (15만원 / 60~65포)

구성: 오가피나무·압질·뿌리, 오가피 열매
구기자, 당귀, 우슬, 속단, 독활, 대추, 생강
효능: 뼈 강화(청소년 성장)
관절 통증 완화, 혈압

